**막0104 Note**

**"회개의 침례"란 무엇을 말하는가**

**Ⅰ. 서**

"회개의 침례"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제대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서, 본인은 이를 성경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회개와 침례하면, 우선적으로 침례 요한이 먼저 떠오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회개, 침례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먼저 발췌해 보았습니다.

1. 마태복음 말씀의 발췌 부분입니다.

Ω마0301. 그 당시의 날들에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선포)하면서 나오니라,

마0302. 그리고 말하되, 너희는 회개하라(마음,생각을 바꾸다, 메타노에오:생각하다,재고하다, 가책을 느끼다,뉘우치다,회개하다), 이는 천국의 왕국(바실레이아)이 가까이에 있음이라,

마030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의 모든 지역이 그에게 나오니라.

마0306. 그리고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엑소몰로게오:인정하다,동의하다,전적으로 일치하다,자백하다,고백하다,약속하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으니라.

마0308. 그러므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에 합당한(어울리는) 열매들을 내라.

마0310. 그리고 이제 도끼 역시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유익한 열매를 내지 않는 낱낱의 나무는 잘려 넘어져, 불속으로 던져지느니라.

Ω마0311. 나는 실로 회개(마음과 생각을 바꿈, 메타노이아:가책,개심,회개,반전시킴)에 이르게 하려고 [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착색하다)를 주거니와,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세력(힘)이 있으시니, 나는 그 분의 신들을 들고 다니기에도 합당치 않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써와 불로써 침례를 주시느니라.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와 아들의

이름의 권위와 성령의 이름의 권위로 그들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면서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다다스코:가르치다,배우다)②,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마데튜오:(자동사)학생이 되다,(타동사)제자를 만들다,학자로 등록하다,교훈하다,가르치다,제자가 되다],

2. 마가복음 말씀의 발췌 부분입니다.

Ω막0104.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주고,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한 '회개(메타노이아:가책,개심,회개,반전시킴)의 침례'를 전파(선포)하니라.

막0105. 그리고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미완료 시제),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엑소몰로게오:인정하다,동의하다,전적으로 일치하다,자백하다,고백하다,약속하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모두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니라.

막0108. 참으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었거니와,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느니라.

3.누가복음 말씀의 발췌 부분입니다.

눅030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Ω눅0303. 그리고 대언자(代言者)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전파(선포)하면서, 그가 요단강 주변의 모든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눅0306. 그리고 모든 육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느니라.

눅0308. 그러므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에 합당한(족한) 열매들을 맺으라, 그리고 너희 속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느니라"고 말하기를 시작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함이니 곧, 하나님은 이들 돌들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눅0309. 그리고 이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또한 놓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낱낱의 나무는 잘려 넘어져,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눅0316. 요한이 대답하니라, 그들 모두에게 말하되, 참으로 나는 물로써 너희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느니라, 그러나 나보다 더 세력(힘)있는 분이 오시느니라, 나는 그분 신발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써와 불로써 침례를 주시느니라.

4.요한복음 말씀의 발췌 부분입니다.

Ω요0106.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니라.

요0107. 그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증인(마르튀리아:주어진 확증,기록,보고,증거,증명)으로서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요0108. 그는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에 관해 증거하기 위해 보내졌느니라.

Ω요0115. 요한이 그분에 관해 증언하여 외쳤으니, 말하되, 이분이, "내 다음에 오시는 그분이 내 앞서 놓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앞서 계셨음이라"고 내가 말했던 그분이셨느니라.

Ω요0119. 그리고 '당신이 누구냐?'고 요한에게 묻기 위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을 때에,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니라.

요0120. 이에 그가 실토하고 부인하지 않았느니라, 대신에 실토했으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Ω요0121.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물으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당신이 엘리아스냐?", 이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니라", "당신이 그 대언자(代言者)냐?", 이에 그가 대답하니라, "아니라"

Ω요0122.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니라, 당신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니라, 당신은 당신 자신에 관해 무엇이라 말하느냐?

Ω요0123. 그가 말하니라, 나는 대언자(代言者)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라.

요0125.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물어, 그에게 말하니라, 만약 당신이 그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스도 아니고, 그 대언자도 아니면,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신이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주느냐?

Ω요0126.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니라, 말하되, 나는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느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오이다: 체험, 경험적으로 아는 것으로서,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 보다,알다,깨닫다,생각하다,지식을 갖다,쳐다보다,느끼다,확신하다,말하다,이해하다,알고 있는,알고 있다/호크마 주석: 교제와 경험과 관계를 통해 아는 상태)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느니라.

요0127. 그분은 내 다음에 오시며 내 앞서 놓이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느니라.

Ω요0132. 또 요한이 증언하니라, 말하되, 성령이 한 마리의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그분 위에 머물렀느니라.

요0133.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셨으니, 그 위에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보는 자,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니라.

요0134. 그리고 내가 보았으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였느니라.

5.마지막으로 서신서에서 발췌한 말씀입니다.

행0105. 이는 요한이 참으로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주었으나, 너희는 지금부터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이라."

Ω행0237. 그들이 이를 들은 그때에,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에게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니라, 남자들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랴?

Ω행0238.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너희 낱낱의 자는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느니라.

행1324.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전파(선포)하고,

**Ⅱ. 살펴보기**

1. **회개의 침례**

Ω막0104.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주고,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한 '회개(메타노이아:가책,개심,회개,반전시킴)의 침례'를 전파(선포)하니라.

Ω눅0303. 그리고 대언자(代言者)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전파(선포)하면서, 그가 요단강 주변의 모든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행1324.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전파(선포)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그리고 사도행전에 '회개의 침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회개의 침례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회개와 침례가 떼어낼 수 없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침례가 있어야 하며, 침례의 자리에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하나됨)를 받으라**

마0302. 그리고 말하되, 너희는 회개하라(마음,생각을 바꾸다, 메타노에오:생각하다,재고하다, 가책을 느끼다,뉘우치다,회개하다), 이는 천국의 왕국(바실레이아)이 가까이에 있음이라,

마0306. 그리고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엑소몰로게오:인정하다,동의하다,전적으로 일치하다,자백하다,고백하다,약속하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으니라.

막0105. 그리고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미완료 시제),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엑소몰로게오:인정하다,동의하다,전적으로 일치하다,자백하다,고백하다,약속하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모두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니라.

Ω행0238.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너희 낱낱의 자는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느니라,

마태복음 3장2절과 3장 6절에서 보면, 이 '회개의 침례'가 분리되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자백은 회개에 따른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1장 5절에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침례'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회개의 침례"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돌아섬)없는 침례(하나됨)는 없다는 말씀이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반역죄인이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반역 죄인이 왕과의 종전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왕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반역행위를 진정으로 돌이키고 뉘우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반역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죄인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다시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왕 앞에서 다시는 반역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음모를 꾸미려는 죄인을 어떤 왕이 그 죄를 탕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려면(침례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돌아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섬(회개) 없는 하나됨(침례)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교회 밖에 나가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왕 앞에서 회개하고, 왕의 면전을 떠나서는 다시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을 뻔히 아는 어떤 왕이 그의 회개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고, 그를 풀어주고, 다시 하나가 되겠습니까

마0308. 그러므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에 합당한(어울리는) 열매들을 내라.

마0310. 그리고 이제 도끼 역시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유익한 열매를 내지 않는 낱낱의 나무는 잘려 넘어져, 불속으로 던져지느니라.

눅0308. 그러므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에 합당한(족한) 열매들을 맺으라, 그리고 너희 속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느니라"고 말하기를 시작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함이니 곧, 하나님은 이들 돌들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눅0309. 그리고 이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또한 놓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낱낱의 나무는 잘려 넘어져,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반역죄인의 행위는 그의 회개에 합당한, 그의 회개에 일치하는 행실(열매)을 낼 것입니다.

**3.침례(하나됨)를 주는 목적**

1) 죄들의 탕감을 위한 '회개의 침례'

Ω막0104.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주고,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한 '회개(메타노이아:가책,개심,회개,반전시킴)의 침례'를 전파(선포)하니라.

Ω눅0303. 그리고 대언자(代言者)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한 '회개(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꿈)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전파(선포)하면서, 그가 요단강 주변의 모든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Ω행0238.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너희 낱낱의 자는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느니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반역죄인의 죄들을 탕감없이는 다시 왕과의 하나로됨(침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하나로 되는 의식(침례의식)을 베푼다는 것은 회개한 죄들을 탕감하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죄들을 탕감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결별하셨을까라고 저는 평소에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악과 따먹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점이나 흠의 크기에 상관없이, 아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물이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에게 있으면, 그분은 그분 자신의 속성상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인 겁니다.

아마도 그분에게 어떤 흠이나 점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 자신도 영원히 살아계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영생의 비밀은 그분의 완전 무결하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흠이나 점이 있는 그 무엇과도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인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무리 작은 죄였을지라도,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떠나실 수 밖에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죄의 탕감이 없이는 하나됨(침례)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인 겁니다.

이 죄의 탕감도 예수님이 없으시다면 불가능 하셨을 겁니다.

죄의 탕감을 위해서는 그분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한 인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의 필요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들에 대한 형벌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께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분은 인간의 죄들을 탕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과 하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의 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 하나 하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만물을 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보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면,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 겁니다.

어떤 죄와도 함께 동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은 어떤 죄도 없는, 머리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롬1116. 이는 만약 첫열매가 거룩하면, 그 덩어리 또한 거룩하고, 또 만약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 역시 그러함이라.

Ω히0210. 이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로 데려감에 있어, 그들의 구원의 우두머리(아르케고스: 지도자,권세자,통치자,왕)를 고난들을 통해 완전무결하게 만드는 것은, 그를 위해 모든 것들이 있고 또 그에 의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분께 어울렸음이라.

히0211. 이는 성화(따로 떼어 성별함)시키는 그와 성화되는 그들 양쪽은 모두 하나에 속함이라, 그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느니라.

고전0714. 이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 의해 성화(따로 떼어 성별함)되며,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 의해 성화됨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은 깨끗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지금 그들은 거룩하니라.

롬0519. 이는 한 사람의 불청종에 의해 많은 이들이 죄인들로 되었던 것 같이,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청종에 의해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법적으로 깨끗하게) 됨이라.

롬0829. 그분께서 사전에 알고 계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되게 또한 사전에 정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롬1314. 대신에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또 육신의 정욕들을 충족시키려고 육신에게 어떤 제공도 하지 말라,

Ω갈0419.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로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느니라(오디노:해산의 고통을 겪다,해산,구로하다)

1요0206. 그가 그분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그분께서 걸으셨던 바로 그대로, 마땅이 스스로 그렇게 또한 걸어야 하느니라.

**2)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침례**

Ω마0311. 나는 실로 회개(마음과 생각을 바꿈, 메타노이아:가책,개심,회개,반전시킴)에 이르게 하려고[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착색하다)를 주거니와,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세력(힘)이 있으시니, 나는 그 분의 신들을 들고 다니기에도 합당치 않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써와 불로써 침례를 주시느니라.

침례(하나됨)의 또 하나의 목적은 제대로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죄가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죄는 자백이나 고백하며, 죄를 회개할 수 있으나,

우리의 타락성으로 인해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쩌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많은 동서고금의 신학자들이 거듭남의 시점에 대해서 많은 학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물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이 창조된 영을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거듭남의 새로운 영에 대해 말하고 있지, 성령세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새로운 깨끗한 양심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자각할 수 없으며,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거듭나던 간에, 마0311의 말씀은 우리로 회개시키려고 물 침례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듭남에 대한 초대교부들의 생각

교부시대와 중세시대의 중생론은 현대 개신교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개념이다.

2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교회교부들은 ‘세례에 의한 중생’을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토대로 가르쳤다.

이 기간동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의식적인 세례와 내적인 중생 모두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초대교부들은 세례와 중생을 너무나 긴밀히 연결하여서,

‘중생’을 ‘세례’와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1)바나바

초대교부들은 세례가 중생의 일상적이고 공식적인 통로라고 생각하였다.

"바나바 서신"(Epistle of Barnabas, A.D. 100)은 에스겔 47장 12절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죄와 오염으로 충만한 채로 물로 내려갔다가 나올 때는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고, 우리 영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

2)터툴리안(Tertullian. A.D. 145-220)

터툴리안도 역시 세례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의 저술인 "세례에 대하여(On Baptism)" 7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말했다.

“우리가 물로 들어가는 세례의 행위 자체는 육적이지만, 그 효과는 영적이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터툴리안은 세례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다.

“물의 성례(the Sacrament of Water)는 복되도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전의 소경된 죄들이 씻겨져 없어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자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성령(Spirit of God)을 받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내쉼으로 첫 창조 때 인간이 받은 것인데, 후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이다.”

3)키프리안(Cyprian, A.D. 200-58)

주후 248년에서 258년까지 카르타고의 감독이자 라틴 교회의 중요한 신학자였던 키프리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전의 삶의 수많은 잘못들에 얽매이고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내게 가능하다고 믿을 수 없었다. ...... 그러나 생애 초기의 얼룩들이 탄생의 물의 도움으로 씻겨지고 위로부터 빛이 내 마음에 부어졌을 때, 이제 나는 씻겨 졌고 정화되었다; 내가 하늘로부터 성령을 마셨을 때 두 번째 출생(Second Nativity)이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4)어거스틴(Augustine, 354-430)

어거스틴은 아마도 고대교회에 있어서 세례 중생론 (baptismal regeneration)의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였을 것이다. 그는 세례를 다음과 같이 불렀다:

“중생의 씻음” ; “세례 중생” ; “우리들 중생의 성례(Sacrament)” ; “중생의 세례반(font)”

그는 세례가 구원에 필수라고 주장하였다. 어거스틴은 세례와 중생을 밀접하게 결부시켰다. 어거스틴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기쁨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 그리고 이 사실이 곧 자유이다. 우리에게 이 영이 없다면 우리는 죄짓는 것을 기뻐한다 － 이것이 바로 노예상태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노예의 일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칭의는 한 과정이며 이 과정의 진행 가운데서 인간은 사실상 의롭게 된다.

어거스틴이 인간의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를 갖도록 먼저 활동하시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게 되면 우리와 더불어서 그 일을 완성시키신다.”

어거스틴은 구원의 과정에서 먼저 세례의 필수성을 말한다. 어거스틴은 세례 때에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죄의 빚, 즉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고 주장하였다. 어거스틴 자신은 세례 받기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회심” 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고백록" 9장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그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선물과 함께 모든 지난 죄들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것은 세례 때 였다고 하였다.

어거스틴은 세례의 주 목적을 죄의 용서로 보았다.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원죄가 제거된다. 갱신(renewal)은 과거의 죄를 씻는 세례로부터 시작된다.

어거스틴은 세례의 효능을 강조했지만 신앙에 있어서 진실하지 못한 위선자들은 세례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는 유아도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것이 유아세례를 정당화하는 고전적 입장으로 남게 되었다. 세례에 의한 중생을 말하였으면서도 어거스틴은 세례 받은 유아들도 나중에 커서는 회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요컨대 어거스틴은 세례와 회심 둘 다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5)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74)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였다.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받는다, 그것은 영적인 중생(spiritual regeneration)이다; 그러나 견신례를 통하여 사람은 영적인 삶의 완전한 성숙을 받는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효론(ex opere operato)을 주장하였다.

세례 받는 자는 중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성례들은 은혜의 도구적 원인들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 세례, 견신례, 성찬, 고해, 종부성사는 죄인들이 교회에 가입하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수단들이다. 세례는 첫 번 성례이다. 그것은 사람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합시키는 것이다.

**4.마음을 다하여 믿고, 그리고 침례(하나됨)를 받아야 합니다.**

막1616. 믿고,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는 그는 구원되느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그는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카타크리마:불리한 판단을 하다,선고하다,정죄하다,저주하다).

Ω행0836. 그리고 그들이 길을 계속 갈 때에, 그들이 어떤 물가에 이르니라. 이에 그 환관이 말하니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받는 것을 무엇이 방해하겠는가?

행0837. 이에 빌립이 말하니라, 만약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이 믿으면, 당신이 받으실 수 있나이다. 이에 그가 응답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행0838. 이에 그가 마차를 멈추도록 명하니라, 그리고 그들 둘이 곧, 빌립과 환관이 물 속으로 내려가서, 그가 저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니라.

행1808. 그리고 회당의 머리 지도자인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主) 위에서 믿으니라. 또 많은 코린트인들이 들어 믿고,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니라.

**5.성령 침례**

1)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한 침례를 주십니다.

막0108. 참으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었거니와,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느니라.

눅0316. 요한이 대답하니라, 그들 모두에게 말하되, 참으로 나는 물로써 너희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느니라, 그러나 나보다 더 세력(힘)있는 분이 오시느니라, 나는 그분 신발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써와 불로써 침례를 주시느니라.

행0105. 이는 요한이 참으로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주었으나, 너희는 지금부터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이라."

요0133.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셨으니, 그 위에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보는 자,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니라.

2)침례와 성령의 임재와의 관계

Ω행0814.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저들에게 보내니라.

행0815. 그들이 내려갔을 때, 저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이 저들을 위해 기도하니라.

행0816. [이는, 아직은 그들 중의 누구 위에도 그분께서 내려오시지 않았음이라, 단지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만 받았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침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후에야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성령의 임재).

구원받게 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받게(성령의 임재) 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Ω행1901.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아볼로가 코린트에 있던 동안에, 윗쪽 해안들(메로스: 분배,나눔,해안,과정,기교,특별한,부분,부분적으로,조각,몫)을 통해 지나 왔었던 바울이 에페수스에 오니라, 그리고 어떤 신도(마데테스: 배우는 사람,학생,제자)들을 발견하니라.

행1902. 그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너희가 믿은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니라, 어떤 성령이 계신지 우리가 듣지도 못하였나이다.

Ω행1903.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에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았느냐?" 이에 그들이 말하니라, "요한의 침례에로",

Ω행1904. 그러자 바울이 말하니라, 참으로 요한이 자기 뒤에 오셔야 할 분 위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백성이 믿어야 함을 말하면서, 회개의 침례(잠겨 하나로 됨)로써 침례를 주었느니라.

Ω행1905. 그들이 이를 듣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으니라.

행1906. 그리고 바울이 그들 위에 자기 손을 얹으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말들 (글롯싸:혀,언어,말,방언)로 말하고, 대언(代言)하니라.

침례 요한의 물 침례에로 침례를 받았던 에페수스의 신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바울에게서 물 침례를 받았으며, 성령 침례는 물 침례 받았을 때가 아니고, 물 침례 받고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계는 일반적으로 침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듭남과 성령세례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침례 받는 것이 곧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와 거듭남, 성령의 임재, 성령침례의 시기적 상관관계의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성령침례를 받은 자들이 또 물 침례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행1045. 그리고 믿던 할례주의 자들(페리토메: 할례,할례자)이 곧, 베드로와 함께 왔던 모든 이들이 놀랐으니, 이는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음이라.

행1046. 이는 그들이 말들(글롯싸:혀,언어,말,방언)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드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음이라.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니라,

행1047. 이들이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지 못하도록, 누가 물을 금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령을 받았느니라.

행1048. 이에 그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받도록 명하니라, 그후에 그들이 그에게 며칠동안 머물기를 구하니라.

**6. 예수님의 위임 명령**

침례를 주면서 가르치라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와 아들의 이름의 권위와 성령의 이름의 권위로 그들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면서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다다스코:가르치다,배우다), ②,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마데튜오:(자동사)학생이 되다,(타동사)제자를 만들다,학자로 등록하다,교훈하다,가르치다,제자가 되다],

Ω막1615.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너희는 온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낱낱의 족속(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선포)하라

막1616. 믿고,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는 그는 구원되느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그는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카타크리마:불리한 판단을 하다,선고하다,정죄하다,저주하다).